

8일 Market Index			
↓ 코스피	2857.76	↑ 코스닥	859.27
	(-4.47)		(+11.78)
↑ 금리 (연율)	3.119	↑ 환율 (원/달러)	1383.30
	(+0.004)		(+3.00)

수출 증가에도
내수 회복 더더
경기개선에 다소 미약
02



‘온플법’ 2라운드... 플랫폼 업계 “과잉규제·역차별”

(온라인플랫폼법)

野, 22대 국회서 온플법 재추진
분쟁위·단체교섭권 설치 등
더 강력한 규제들로 발의돼

IT업계 “공정거래법으로 충분
과도한 제약에 경쟁력 약화”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연이어 발의되며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새로 발의된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대선과 총선에 밀려 흐지부지됐던 과거를 뒤로하고 더욱 강력한 규제로 돌아왔다. 업계에서는 단체교섭권 등 일부 세부 규정을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22대 국회 시작 후 한 달여 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등 총 5건의 온플법이 발의됐다.

이 법안들은 모두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서 교부 및 계약 해지, 서비스 제한 통지 의무를 공통 세부 규정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도록 하며, 이용 사업자들의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구성권과 교섭권도 법안 내용의 핵심이다.

다만 규제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각

법안별로 차이가 있어 매출 기준 100억 원부터 5000억 원까지 다양하다.

지난 5일 참여연대 등 110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사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상품 끼워팔기 등 독과점 남용 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제재 수단, 기준을 합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EU, 미국 등 주요국들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제를 진행 중이며, 정부도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와 단체교섭권 설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5개 법안이, 단체교섭권 제도 도입은 4개 법안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담고 있어 입법 시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단체교섭권 행사 시 교섭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와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제약,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들의 공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IT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등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영역까지 법안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정거래



상반기 국적 항공사 승객 ‘역대 최다’

올해 국적 항공사를 이용한 국내·국제선 여객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중·단거리 노선 운항 위주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8일 인천국제공항에 이륙하는 대한항공 뒤로 LCC 여객기가 주기되어 있다. /뉴스시

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여다보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안을 추가하는 것은 일종의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안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측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만큼 법안 마련이 오히려 늦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쿠이츠 등 배달 앱 3사를 예로 들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사후보장에 생전보장까지 결합 고령화시대 달라지는 종신보험

생보업계, 기존 종신보험 틀 깨
암·간병 100% 환급에 특약 강화

생명보험업계가 기존 종신보험 시장에 변주를 시도하고 있다. 암, 간병 등 건강보장을 종신보험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모양새다. ‘사후보장’ 뿐만 아니라 ‘생전보장’까지 책임지겠다는 포석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사후보장과 함께 암·간병까지 생전에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장구조의 종신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한화생명 역시 지난 6월 신개념 종신보험인 ‘한화생명 암플러스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암에 걸리면 사망보장을 2배로 올려준다. 남은 보험료 부담은 없애고 그 동안 낸 보험료는 암진단자금으로 돌려준다.

암이라는 질병을 종신보험과 연계한 새로운 보장구조로 기존 종신보험의 틀을 깨겠다는 평가를 얻는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에 대응해 인구구조 변화로 퇴색하던 기존 종신보험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를 불러일으킨다는 방침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본질적 목적보다 한결음 더 나아가, ‘젊고 건강한 때’보다 ‘늙고 아팠을 때’ 죽음에 대한 대비가 더 절실히 다가오는 보

험의 진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역시 지난 2일 종신보험에 암·간병 등 생애주기에 맞춘 건강보장을 결합한 ‘교보암·간병평생보장보험(무배당)’을 선보였다.

보장과 저축 기능을 모두 갖춘 종신보험으로 평생 사망 보장을 받으면서 암이나 장기간병상태로 진단 시 낸 보험료를 100% 돌려받고 이후 보험료 납입도 면제된다.

특약을 통해 최신 암치료 및 허혈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여성특화수술, 재해상해 및 재해골절 등을 보장한다. 통합치료를 보장하는 암주요치료 특약과 비급여표적항암약물치료, 재진단암 등 신규특약을 통해 암보장을 강화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최근 암보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생애주기에 맞춰 종신보험과 결합한 상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건강보장을 연계한 종신보험이 흐름을 타면서 생보업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이전부터 종신보험에 생전보장을 신경써온 만큼 목적성을 잃어가던 종신보험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 분석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전부터 종신보험이 사후보장에서 생전보장을 신경써왔다”며 “특히 올해 초부터 건강보장을 연계한 종신보험이 흐름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

외국인 ‘바이 코리아’ 국내 투자자는 ‘해외로’

올해 상반기 외국인 총 22.9조 순매수
주식보유액 68조... 시총 30% 달해
국내 외화증권잔액도 184조 최대치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바이 코리아(Buy Korea)’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해외투자 확대에 더욱 몰리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상장주식 순매수는 총 2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8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6월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순매수

한 상장주식 규모는 2조8980억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순매수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859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7조9000억원 늘었으며, 이는 전체 시가총액의 30.0%를 차지했다.

한국거래소 집계 결과 상반기 외국인의 순매수 1위 종목은 삼성전자로 7조9971억원을 매수했다. 이어 SK하이닉스(3조8039억원)와 현대차(3조4541억원)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금융투자업계는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 배경으로 인공지능(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꼽았다.

반면 국내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

는 ‘서학개미’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외화증권(주식 및 채권) 보관잔액은 지난 3일 기준 1331억5700만달러(183조9617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미국 시장 쏠림 현상이 심했는데 미국 증권의 보관액은 994억1400만달러(137조3106억원)로 전체의 75%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 낮은 ‘코스피 수익률’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코스피의 연초대비 상승률은 7.63%다. 동기간 미국 나스닥은 22.25% 올랐으며, 전쟁 중인 이스라엘 TA35지수도 9.91%의 상승률 기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이재명 마케팅’ 과열
- ▲ 국민의힘 전당대회, 광주서 첫 합동연설회 시작 /사진 뉴스시

- ▲ 통일교육교재, 자유민주주의의 강조... 9·19 합의 삭제
- ▲ 정부 “김여정 ‘윤 탄핵청원’ 언급은 내정간섭”



- ▲ 영호남 8개 시·도지사 공동성명 “지역균형발전 합심” /사진 뉴스시
- ▲ ‘채상병 사건’ 수사 마무리... 6명 송치·3명 불송치 결정